

수신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목: '서강학보 기사 관련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

1. 대학언론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강학보 기사 관련 요청의 건”(총추위, 2020.11.16.)에 대해 대학언론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3. 대학언론사 주간은 총추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대학언론사 주간으로서의 역할과 총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4. 위 2에는 “학교 기구의 무리한 정보 입수 및 보도를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보도가 ‘무리한 정보 입수’를 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관련 기자들을 통해 확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추위의 표결 결과는 서강학보의 보도 이전에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교내 구성원들 사이에 공개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이 사실입니다. 서강학보의 보도는 ‘이미 공개되고 유포된 사실 정보’에 기반한 것이지 결코 ‘무리한 정보 입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5. 위 2에는 “이번에 학보를 통해 표결 결과가 공개된 것이 후보자 한명의 사퇴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합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언론사에서는 ‘표결 결과의 공개’와 ‘후보자 사퇴’ 사이의 인과성은 판단할 수 없으나, ‘서강학보의 보도’가 ‘후보자 사퇴’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 4에서 언급했듯이 표결의 결과는 서강학보의 보도에 의해 공개되고 유포된 것이 아닙니다. 표결 결과는 원칙적으로 총추위 안에서 총추위원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결 결과의 외부 공개 및 유포는 총추위(원)에서 비롯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표결 결과의 공개 및 유포’가 ‘후보자 사퇴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 또한 총추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처럼 표결 결과의 외부 공개 및 유포에 대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총추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이를 대학언론사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6. 대학언론사에서는 올해 초 ‘대학언론사 규정’을 제정한 이후 윤리 규정 등 대학언론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 2에서 언급한 “제도적 장치”도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끝.